남해군, 남해형 숙박대전 16일 시작

허귀용 기자 | 승인 2022.09.06

> 온라인과 모바일 예약 숙박 할인 상품 제공
> 이달 16일부터 10월 2일까지

남해군이 '2022 남해군 방문의 해'를 맞아 온라인과 모바일 예약으로 숙박 할인 여행상품을 구매하는 '남해형 숙박대전'을 16일 시작한다.

남해군과 남해군관광문화재단은 올해 초 문체부 2022지역관광추진조직(DMO)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한국관광공사, 한국스마트관광협회, 숙박전문기업 마이리얼트립과 연계해 이번 숙박대전을 추진하게 됐다.

남해군관광문화재단은 업무협약을 맺은 한국스마트관광협회를 초청해 '관광벤처기업의 비즈니스 케어' 행사를 진행했으며, 여행분야 플랫폼(OTA) 기업들과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남해관광 온라인 전환을 추진해 왔다. 이번 숙박대전 또한 그 하나다.

남해형 숙박대전은 '2022남해군 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분야 플랫폼 기업 '마이리얼트립(MyRealTrip)'과 연계해 숙박 할인쿠폰을 제공한다. 또한 이 기업 웹사이트 프로모션 페이지로 남해군 타깃 마케팅을 이어간다. 쿠폰 발급 대상 숙박업소는 마이리얼트립에 등록된 남해군내 호텔, 펜션, 풀빌라 등 300여 곳이다.

특히 숙박 할인쿠폰은 이달 30일~10월 2일 열리는 남해군 대표축제인 '독일마을 맥주 축제' 기간에 사용할 수 있어 남해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최소 3만 원에서 최대 5만 원의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할인쿠폰은 마이리얼트립 웹사이트 배너창이나 국내숙소 카테고리 남해군 프로모션 페이지에서 구입할 수 있다.

남해군관광문화재단은 이번 남해형 숙박대전을 계기로 관광분야 플랫폼(OTA)기업과 제휴함으로써 모바일 등 비대면으로 예약하는 여행분야 플랫폼 생태계에 대응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숙박대전 사업이 끝난 후에는 유입 검색키워드, 이벤트 페이지 조회수 등 수집 가능한 데이터를 활용해 앞으로 체계적인 온라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남해군관광문화재단 조영호 본부장은 "온라인 소비시대 수요에 발맞추어 관광관련 기관·기업과 함께 이번 숙박대전을 기획했다"며 "2022 남해군 방문의 해를 맞아 3년 만에 열리는 독일마을 맥주축제를 찾아주시는 관광객에게 숙박 할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남해관광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허귀용 기자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허귀용 기자